

제62차 춘계 학술대회

# 문화예술 기반 진로교육과 인간 주체성

일시 | 2026년 4월 18일(토) 10:00~16:30

장소 | (오전)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생활과학관 605호  
(오후) 북서울꿈의숲 상상톡톡미술관

주최 |  한국진로교육학회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Real Stimme  
Gesellschaft für Deutsches Lied



## 행사 일정

일시		공식 행사 및 주제발표	장소	
~ 10:00		[접수] 포스터논문 전시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생활과학관 605호	
제1부	10:00 ~ 10:10	[개회사]		
	10:10 ~ 10:40	[주제 발표 1] 남미숙 대표(㈜일과사람성장연구소)		
	10:40 ~ 11:10	[주제 발표 2] 김혜진 수석교사(서울청구초등학교)		
	11:10 ~ 11:40	[주제 발표 3] 추미정 연출(사단법인 제로캠프)		
	[휴식] 11:40 ~ 12:00			
	제2부	12:00 ~ 12:40		[종합 토론] 좌장   양종국 교수(한국진로교육학회장) 토론자   윤성연 교수(한국침례신학대학교) 이한나 교수(인덕대학교) 남미숙 대표(㈜일과사람성장연구소) 김혜진 수석교사(서울청구초등학교) 추미정 연출(사단법인 제로캠프)
		12:40 ~ 13:00		[폐회식]
[장소 이동] 13:00 ~ 14:00				
[점심 식사] 14:00 ~ 15:00				
제3부	15:00 ~ 16:30	[공연 및 전시 관람] 공연   '꿈을 그리는 노래' (슈만과말리의예술과 삶) 전시   인공지능(AI)과 공간디자인	북서울꿈의숲 상상톡톡미술관	



# 차 례

개회사: 양종국(한국진로교육학회장) .....	vii
개회사: 임진이(한국진로교육학회장) .....	viii
주제발표 1: 남미숙(㈜일과사람성장연구소 대표) .....	1
주제발표 2: 김혜숙(서울청구초등학교 수석교사) .....	9
주제발표 3: 추미정(사단법인 제로캠프 연출) .....	35
종합토론 .....	49
포스터발표 .....	55



# 개 회 사

한국진로교육학회장 양종국

안녕하십니까?

한국진로교육학회 제17대 학회장을 맡은 한경국립대학교의 양종국입니다. 1993년 11월 4일 창립된 이래, 33년의 긴 역사를 가진 한국진로교육학회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진로교육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 뜻깊은 제62차 춘계학술대회에 관심과 애정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번 제62차 춘계학술대회는 '문화예술 기반 진로교육과 인간 주제성'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및 독일예술가곡연구회와 함께하는 뜻깊은 공동학술대회로 개최됩니다.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 속에서, 스스로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주도적으로 궤적을 그려 나가는 '진로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특히 예술적 경험이 어떻게 개인의 전 생애적 발달과 진로에 영감을 주는지를 학문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이번 대회의 기획은, 우리 학회가 진로교육의 외연을 더욱 풍부하게 확장해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첫 번째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그림책이라는 매개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로 에세이를 써 내려가는 '자기주도적 진로교육 사례'가 남미숙 대표님((주)일과사람성장연구소)의 발표로 펼쳐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혜진 수석교사님께서 '음악이 이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화두로 진로교육 관점에서 본 음악교육의 의미를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추미정 연출님(사단법인 제로캠프)께서 연극 무대에서 시작된 변화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와 자기이해의 가능성을 생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오늘의 발표들을 아우르며 진로교육과 문화예술의 융합에 대한 심층적인 담론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오후에는 자리를 북서울꿈의숲 상상톡톡미술관으로 옮겨, AI와 공간의 융합을 다루는 '제38회 국제공간디자인초대작품전' 관람과 함께, 슈만과 말러의 생애를 조명하는 진정한 융복합 콘서트 '꿈을 그리는 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의 치열했던 삶과 직업 의식이 어떻게 불후의 명곡으로 승화되었는지를 함께 느끼며, 진로교육의 가장 살아있는 현장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한국공간디자인학회와 독일예술가곡연구회 관계자 여러분, 귀한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진로교육을 사랑하는 교수님들, 진로전담교사 여러분, 그리고 관련 기관의 모든 참석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스스로 길을 찾는 진로교육의 지혜, 첨단 기술이 빚어내는 공간의 미래, 그리고 거장들의 삶을 담은 음악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이 특별한 여정에 함께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학술대회가 진로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귀한 시간을 내시어 한국진로교육학회 제62차 학술대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 개 회 사

한국공간디자인학회장 임진이

존경하는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회원 여러분, 한국진로교육학회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따스한 봄기운이 가득한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서 개최되는 2026년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봄 학술대회를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과 공간디자인”을 주제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공간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전 세계를 뒤흔들며 우리의 삶과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예술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담아내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간디자인 역시 기술과 예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인간 중심의 가치와 감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뜻깊은 강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연출을 맡아 국제적인 무대에서 한국 공간연출의 위상을 보여주신 고주원 교수님과, 인공지능 기반의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실천을 이어가고 계신 박영호 교수님께서 귀중한 강연을 맡아 주셨습니다. 두 분의 깊이 있는 통찰이 이번 학술대회의 학문적 깊이를 한층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진로교육학회와의 융복합 학술대회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한국진로교육학회는 인문사회를 대표하는 학회로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인문과 디자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학문적 교류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서로 다른 분야가 인공지능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중심으로 만나,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와 융합적 사고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를 한양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본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주신 황연숙 학장님과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은 지식과 연구, 그리고 학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와도 매우 잘 부합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질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학문 간 경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공간디자인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AI를 통한 학문적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제발표 1

그림책을 읽고 나의 길을 쓰다:  
그림책 진로에세이 쓰기를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교육 사례

---

발표자: 남미숙 대표((주)일과사람성장연구소)

---



**그림책을 읽고 나의 길을 쓰다**  
**-그림책 진로에세이쓰기를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교육사례-**  
A Case Study on Self-Directed Career Education  
through Picture Book Career Essay Writing

**남미숙 Nam Misook**

한국그림책셀프카운슬링협회 대표, 한국진로교육학회  
문화예술분과위원장, 사단법인 진로순 이사

**keywords :** 그림책(Picture Book), 창작(Job Creation), 진로 에세이(Career Essay)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달은 기존의 직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진로교육도 단순히 존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능력을 넘어,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무를 설계하는 '창직' 역량이 요구된다. '창직'이라는 진로교육의 패러다임을 그림책으로 쉽게 접근함으로써 자기주도적 진로교육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에세이쓰기'를 접목한 '그림책 진로에세이쓰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그림책을 매개로 한 셀프 카운슬링 기법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생애주기(과거-미래-현재)를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AI와 협업하여 창작 에세이를 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목적이 있다.

## 2. 이론적 배경

### 2.1. 그림책의 매체적 특성과 진로 교육의 연계성

그림책은 글과 그림 사이의 '의미의 간극'을 통해 독자가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도록 하는 매체이다. 이러한 특성은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텍스트에 투사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게 하는 구성주의적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그림책의 시각적 은유는 학습자가 자신의 내면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상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을 투사하게 되며, 이는 자기 이해를 촉진하는 심리적 기제가 된다. 이러한 특성은 진로 탐색 과정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보다 안전하게 드러내도록 돕는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그림책의 특성을 구체적인 활동으로 구현하였다. 학습자는 이야기의 빈 장면을 상상하여 서사를 확장하거나, 등장인물의 선택에 자신의 감정을 대입하여 글로 표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자가 단순히 직업 정보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그림책은 진로교육에서 학습자의 내면 탐색을 촉진하고, 자기주도적인 진로 서사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인 매체로 기능한다.

### 2.2.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과 생성형 AI의 만남

현대 진로교육은 개인이 고정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하나의 서사로 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은 Savickas(2005)의 진로구성주의 이론에 기반하며, 진로는 개인이 경험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서사적 과정으로 설명된다.

본 프로그램에서 학습자는 그림책을 매개로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을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이는 진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하는 과정으로, 구성주의 진로이론의 핵심 개념을 반영한다.

한편, 생성형 AI는 이러한 서사 구성 과정에서 '공동 창작자(Co-creator)'로 기능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에서 도출한 키워드를 AI에 입력하고, AI의 응답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고 수정한다. 이 과정은 Schön(1983)이 제시한 '반성적 대화(Reflective Conversation)'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학습자는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외부화하고 다시 성찰하는 순환적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환경은 창의성이 개인의 내적 능력뿐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된다는 Amabile(2020)의 관점과도 연결된다. 생성형 AI는 학습자의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자극으로 작용하며, 새로운 직무를 상상하고 설계하는 창의적 사고를 촉진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성주의 진로이론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반성적 대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진로 서사 구성과 창의적 직무 설계를 동시에 촉진하는 교육 모델을 제안한다.

### 3. 프로그램 설계 및 모듈별 운영 실제

본 프로그램은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완결된 서사로 인식하고, 기술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단계 자아 통합 모델로 설계되었다.

#### 3.1. [모듈 1] 마음 열기: 소중한 나의 발견과 개별성의 인정

##### 3.1.1. 이론적 배경: 자아 정체성과 존재적 가치

모듈 1은 진로 탐색의 시발점으로서 '나의 소중함'을 내면화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소중함의 근거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우월함이 아니라, '남과 다른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본 프로그램은 그림책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존재'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진로 결정의 핵심 동기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 3.1.2. 주요 활동 및 운영: '나는 너와 다르고, 그래서 소중하다'

그림책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깨닫는 과정을 관찰하며, '소중함'이란 외부의 성취가 아닌 내면의 존재 자체에 있음을 학습한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명제는 고립이 아닌 '다름의 인정'을 의미한다. 활동을 통해 나의 독특한 점(성격, 외모, 취향 등)이 남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나와 다른 너도 소중하다'는 타인 존중으로 확장된다.

수업 중 학습자들은 '나의 다른 점 찾기' 활동을 통해, 그동안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특징들이 사실은 나를 구성하는 고유한 기호임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말이 느린 아이"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로 자신의 특성을 재정의하며 존재적 가치를 회복한다.

##### 3.1.3. 진로 교육적 의도: 자기주도성의 기초

자신이 소중하다는 확신이 있는 학습자는 진로를 결정할 때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자유롭다. 즉, "나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자기주도적 진로 태도의 씨앗을 심는 과정이다. 이는 이후 모듈에서 진행될 과거의 행복(모듈 2)과 미래의 소망(모듈 3)을 담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심리적 지지 기반이 된다.

#### 3.2. [모듈 2] 과거: 행복의 기억 복구와 긍정적 자아 서사

##### 3.2.1. 이론적 배경: 회상 요법과 자아 통합

과거 회상은 단순한 기억 재생이 아니라 현재의 자아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Butler(1963)의 생애 리뷰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과거 경험을 재해석함으로써 자아 통합을 이루게 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삶에서 '행복했던 순간'과 '몰입 경험'을 탐색하도록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 활동에 깊이 몰입했던 경험을 떠올리고 이를 서사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흥미와 가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과거 경험을 진로 탐색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 3.2.2. 주요 활동 및 운영: '내가 행복했던 순간이 곧 나의 길이다'

그림책을 통해 자신의 탄생과 성장의 순간들을 복기한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했을 때가 아닌, 스스로가 무언가에 깊이 빠져 즐거웠던 '몰입(Flow)'의 순간을 추출한다. 다른 사람과의 행복 경험을 공유하면서 행복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 3.2.3. 진로적 의도: 본능적인 흥미의 원천 발굴

과거의 행복 키워드는 본능적으로 끌리는 '흥미'의 원천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나다운가?"에 대한 답을 과거의 경험 속에서 스스로 찾아낸다.

**3.3. [모듈 3] 미래: 소망의 구체화와 가치 지향점 설정**

**3.3.1. 이론적 배경: 가능한 자기**

미래에 대한 탐색은 막연한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나, Markus와 Nurius(1986)의 '가능한 자기 (possible selves)' 이론은 개인이 되고 싶은 모습과 되고 싶지 않은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행동 동기를 강화한다고 설명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색깔, 이미지, 이야기 등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추상적인 소망을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가 자신의 가치 지향을 명확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로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는다.

**3.3.2. 주요 활동 및 운영: '나의 소망은 어떤 색깔인가?'**

로저스의 '조진화된 가치'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입장에서 찾아내는 활동을 전개한다. 부모나 주변의 가치관이 반영된 소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순수한 소망을 찾아내는 활동을 한다.

**3.3.3. 진로적 의도: 직업의 가치 지향**

주변의 소망을 벗어나서, 자신이 지향하는 '직업적 가치'를 먼저 세우게 한다. 이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직업이 사라지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연성을 길러준다.

**3.4. [모듈 4] 현재: 강점의 객관화와 자원 목록 작성**

**3.4.1. 이론적 배경: 다중지능이론과 자기효능감**

본 프로그램은 Gardner(1983)의 다중지능이론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다양한 능력을 탐색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단일한 능력 기준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의 강점을 인정함으로써 학습자의 자기 이해를 확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은 행동의 지속성과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강점을 재해석하고 언어화하는 활동을 통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3.4.2. 주요 활동 및 운영: '나의 강점 발견하기'**

8가지 지능 영역을 확대한 10가지 영역 중 자신의 상위 지능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한다. 10가지 강점의 특성을 제시하는 그림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강점을 확인하는 방법과 병행함으로써 심리검사가 갖는 한계를 극복, 보완하도록 한다.

**3.4.3. 진로적 의도: 강점을 만드는 진로개발적 관점**

객관적인 강점보다 주관적인 강점이 중요하다. 진로자아효능감이 진로선택에 중요한 이유이다. 상대적 강점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강점으로 관점을 돌리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강점이 없다고 믿는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강점을 만들도록 하는 진로개발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 3.5. [모듈 5] 창작: AI 협업과 진로 에세이의 완성

#### 3.5.1. 이론적 배경: 구성주의 진로이론과 AI Co-creativity

사비카스(Savickas)의 진로구성주의에 따르면 진로는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가는 서사이다. 여기에 생성형 AI를 '창의적 파트너(Co-creator)'로 도입한다. 학습자가 주체가 되고 AI는 학습자의 내면적 키워드를 사회적 맥락으로 연결해 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

#### 3.5.2. 주요 활동 및 운영: '세상에 없던 나의 직업 만들기'

[모듈 2: 행복] + [모듈 3: 소망] + [모듈 4: 강점]의 키워드를 AI에 입력한다. AI가 제안하는 새로운 직무를 검토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직업명을 확정하여 에세이를 집필한다.

#### 3.5.3. 진로적 의도: 창작하는 훈련

기존의 직업 시장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창조하는 주체'로서의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가장 고차원적인 자기주도적 진로 교육의 실현이며, 디지털 리터러시와 인문학적 성찰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 4. 결론 및 제언

### 4.1. 결론

급변하는 직업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 그림책을 매개로 한 인문학적 성찰과 생성형 AI의 기술적 보조를 결합한 '그림책 진로 에세이 쓰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책은 학습자가 자신의 생애주기(과거-미래-현재)를 시각적·서사적으로 투명하게 함으로써, 파편화된 자아 개념을 하나의 통합된 정체성으로 구축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생성형 AI를 '창의적 파트너(Co-creator)'로 활용하는 프로세스는 학습자가 기존의 직업 분류 체계에 자신을 맞추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적 키워드를 사회적 맥락으로 확장하여 새로운 직무를 설계하는 '창직(Job Creation)'의 주체로 거듭나게 하였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인문학적 성찰이 결합된 자기주도적 진로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서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다.

#### 4.2.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진로 교육 및 관련 연구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평가 지표의 객관화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다. 본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참여 학습자들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및 '창직 의지' 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장기적인 추적 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융합형 진로 교육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그림책의 은유를 해석하는 상담 역량과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을 동시에 갖춘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과 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본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을 넘어 성인 학습자의 생애 전환기 진로 재설계나 은퇴 설계 등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 적용되어 전 생애적 진로 발달을 돕는 보편적 교육 모델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utler, R. N. (1963). The life review: An interpretation of reminiscence in the aged. *Psychiatry*, 26(1), 65-76.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NY: Basic Books.
- Markus, H., & Nurius, P. (1986). Possible selves. *American Psychologist*, 41(9), 954-969.
- Amabile, T. M. (2020). Creativit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 world of surprise. *Academy of Management Discoveries*, 6(3), 351-354. <https://doi.org/10.5465/amd.2019.0075>
- Rogers, C. R. (1951). *Client-centered therapy: Its current practice, implications, and theory*. Boston, MA: Houghton Mifflin.
-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42-70). Hoboken, NJ: Wiley.
- SchI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ew York, NY: Basic Books.
- 한국그림책셀프카운슬링협회. (2025). *어린이 전문가 교재*.

## 주제발표 2

음악은 이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진로교육 관점에서  
본 음악교육 사례

---

발표자: 김혜진 수석교사(서울청구초등학교)

---





- ❖ ● 여러분이 학교에서 경험한 음악은 지금의 삶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 내 삶의 음악은?
- 내가 즐기고 있는 음악은?



3

- ❖ ● 음악 수업은 학생의 삶과 이후 진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 음악적 경험은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지속될까?
-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에게 음악교육은 무엇을 남길까?



4

## ※ 음악 교육과 진로 교육이 다루는 질문

-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나는 무엇에 감동할까?  
나는 어떻게 표현할까?

이 질문을 다루는 교과 중 하나가 **음악**

진로교육의 변화

직업 선택 -> 현재 삶의 방향 탐색, 정체성 형성, 자기 이해

진로교육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다루는 교육

## ※ 음악교육의 가능성

**감각적 경험** 아름다운 소리와 어울림을 듣는 경험

**감정 경험** 감정을 느끼고, 해소하며, 표현하는 경험

**창작 경험**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경험

**공동체 경험** 함께 연주하고 즐기는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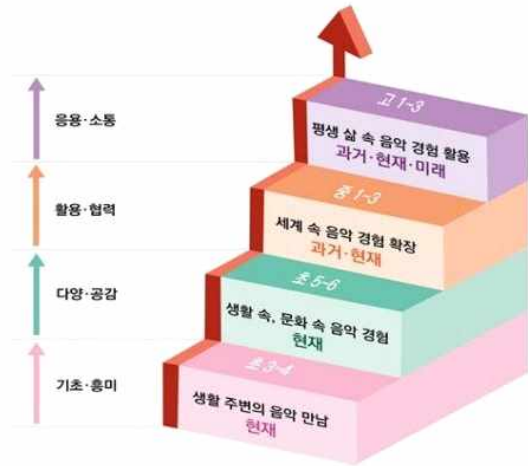
이 경험들은 직업 교육이 아니라 삶의 경험이자 미적 체험

그래서 음악은 직업이 되지 않더라도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

## 2022 개정교육과정 (음악과)



[그림 1] 음악 교과 교육과정의 설계 개요



[그림 2] 음악 교과 교육과정의 학년군별 내용 구성과 위계

음악 교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감성, 창의성, 자기주도성을 발휘하여 음악 활동을 하며, 삶 속 공동체 내에서 음악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 ※ 음악이 삶에 남기는 은근하지만 깊은 영향

- 음악교육의 목표는 음악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음악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 그리고 그런 경험은 학생의 이후의 삶과 진로 선택에 **은근하지만 깊은 영향을 남긴다.**
- **모든 아이가 음악가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음악을 경험한 아이는 자신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 ※ 음악 - 연결하는 경험

음악은 연결하는 경험이며 그 경험은 이후의 삶에도 이어진다.

### 1. 사람과 사람의 연결

함께 노래하고 연주하며 관계가 만들어짐

### 2. 사람과 세상의 연결

소리와 공간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인식

### 3. 예술 간의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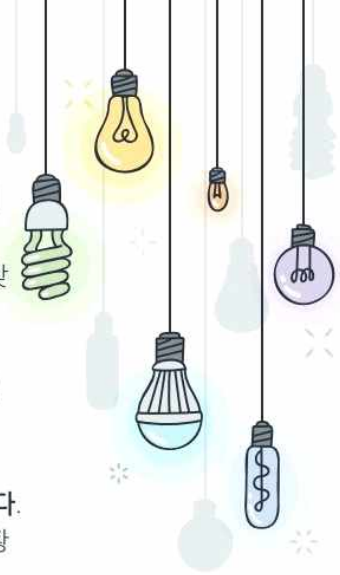
음악은 다른 예술과 만나 확장됨



## 20년 전 제자에게서 온 편지



김혜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2002년 10살 때 제자 이\*\*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 지금은 서른의 나이로 인사드리는 오래 전 제자 이\*\*입니다. 항상 제 초중고 학창시절을 통틀어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라 꼭 스승의 날에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늦게 메일주소를 찾아 연락드렸습니다. 마지막 주셨던 메일이 10년 전 스무살 때 받았던 메일주소라 지금도 이 주소를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실용음악 작곡과로 입학하고 싱어송라이터로 졸업한 뒤 \*\*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꼭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음악을 지금까지 놓지않고 있는 마음 중에 어린시절, 선생님께 받은 교육이 정말 중요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풀려가는 중이라지만 여전히 건강 조심하세요 선생님! 근황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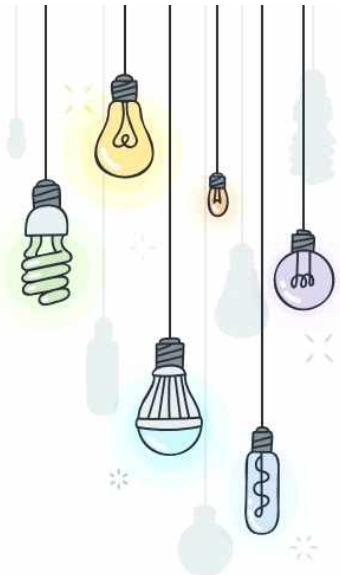


11

## 이 편지를 받기 10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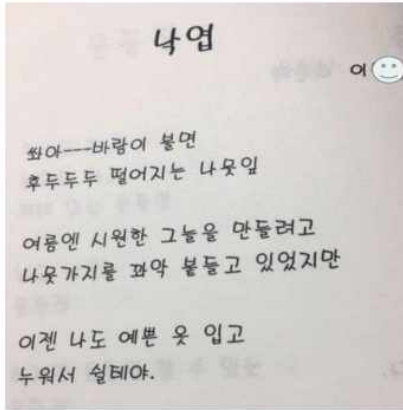
선생님  
정말 너무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초등학교 3학년때 저에게 음악의 세계를 더욱 보여주셔서 지금은 음악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디 학교에 계세요??  
  
실용음악 작곡과를 공부하고있어요...  
한번 재수해서 이번해에 대학을 가려구요..  
\*\*초때 추억이 너무 그립습니다...ㅜ  
건강하세요. 선생님!

2012.4.2.



12

## ✧ 초등학교 3학년 그 아이



그리고.... 선생님의 답장

\*\*아! 이제 어엿한 서른살, 멋진 어른이 되었구나. 선생님은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네 메일을 받고 정말 기뻐한다. 10년 전 실용음악과 진학을 위해 공부하고 있던 네가 그 목표를 이루고 싱어송라이터가 되었으니 정말 대단하다!! 3학년 때 쓴 네 시 중에서 선생님이 좋아했던 시야. 그 때부터 생각이 남달랐던 네가 결국 창작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 참 잘 어울린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음악을 만들어가길 응원할게.



13



@hyejinkim9709 4년 전  
무언이 알고리즘이 나를 이끌었네요. 추억에 잠겨봅니다. 활짝웃 연리지 합창단원들 다 잘 지내고 있나요? 그럼네요 ^^

♡ 4 ♡ 답글

@goodtamago 1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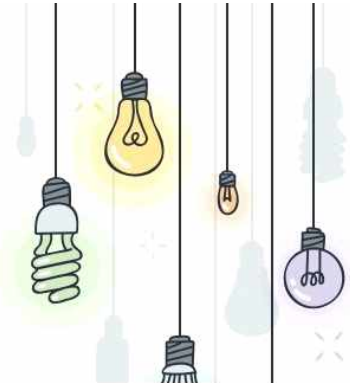
선생님 안녕하세요 🍀

저때 알토 파트를 맡았던 회지우입니다 🙏

저도 알고리즘의 마법에 이끌려 영상에 도착하게되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학창시절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신 선생님의 소식을 댓글로나마 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신기하고 기뻐요. 잊고 지냈던 영웅들도 다시 볼 수 있어서 어떤 해지네요.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지? 🙏

피땀뚱 시간들을 영상으로 남겨주신 분에게도 감사인사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선생님은 많은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주시는 중이시겠죠? 벌써 10년도 넘는 세월이 흘렀네요.. 돌아갈 수 없는 그리운 시간이지만 그래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 영상에 나오는 모두가 모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또 누군가가 알고리즘에 이끌려 다음 댓글을 남겨주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



14



졸업식 축가는 졸업하는 내가 부른다

15



16



초등음악수업연구회 - (온오프라인)동부모임 : 교실악기합주

11

# PROGRAM

## 4차 발표

사회 | 박하운 (2학기 진로자적회 여자 회장)

1	1학년 4반	난타   베토벤 바이러스	8	1학년 4반	창의무용   왕도토리
2	4학년 4반	태권무   그대에게	9	6학년 4반	기타   시작
3	3학년 4반	우쿨렐레   피노키오 여행을 떠나요	10	2학년 4반	태권무   파이팅 해야지
4	2학년 4반	핸드벨   바람 위의 포노	11	3학년 4반	창의무용   We Will Rock You (의용곡) 마리아
5	5학년 4반	기타   럭키 스트라이크	12	4학년 4반	우쿨렐레   문어의 꿈
6	6학년 4반	태권무   마에스트로	13	5학년 4반	장구   영남 사물놀이
7	음악동아리	아카펠라   웃으면서 살아요 개통별레			

### 예술교육수업주간

11



## 선생님은 왜 ( )을 가르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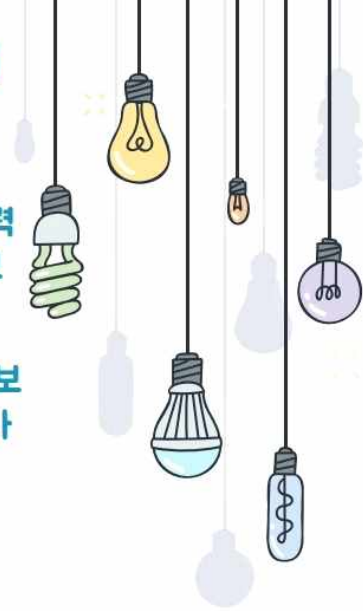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가 꿈꾸는 음악 수업.

1. 누구나 선천적 음악성을 타고난 존재(음악아로서의 나)로서 인간 내면을 건드리는 음악적 감수성을 찾게 돕는 수업
2. 다른 사람과 음악을 통해 잘 연결되며, 예술 활동에서 오는 순수한 아름다움과 기쁨, 자긍심을 즐길 수 있는 수업
3. 음악과 음악, 음악과 이야기, 음악과 여러 콘텐츠를 연결하며 공통으로 꿰뚫는 핵심을 발견하는 수업
4. 배우고 가르치는 중에, 보람과 가치, 음악 기능의 진보와 성취, 공동체성을 향유할 수 있는 수업

## 노도프-로빈스(Nordoff-Robbins)의 '음악아(Music Child)'

인간은 누구나 리듬과 선율에 반응하는 선천적 능력이 있으며, 이는 인간의 건강한 생명력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노도프-로빈스에 따르면 '음악아'는 인간 내면의 보편적 창의성이며, 음악 교육은 바로 이 잠재된 자아를 깨워 세상과 소통하게 하는 과정이다.



사례1. [자기 인식]사회정서 프로젝트  
'나를 표현하는 음악'

**모두 다 꽃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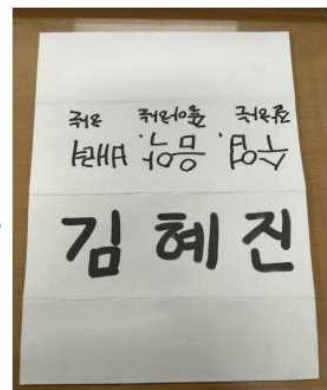
모두 다 꽃이야  
-꽃노래- 류형선 작사곡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the song '모두 다 꽃이야' (Everything is a Flower). The score is written on four staves in treble clef with a 6/8 time signature.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The lyrics are: '난 꽃 피어도 꽃 이고, 바람에 피어도 꽃 이고, 가에 피어도 꽃 이고, 모두 다 꽃 이 야. 아무 데 나 피 어 도, 생 긴 매 를 피 어 도, 이 름 없 이 피 어 도, 모두 다 꽃 이 야.'



## 이름표 만들기

- 잘 하는 것, 좋아하는 것,
-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잘 표현하는 미덕





## 이름표 발표하며 퀴즈내기

저는 ~을 잘하고, ~을 좋아하는 000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잘 표현하는 미  
덕은 무엇일까요?



## 1절 노래가사를 나의 내용으로 적용하 여 바꿔 부르기

~ 잘하는 000, ~ 좋아하는 000, (자  
기의 미덕)하는 000, 모두 다 꽃이야



## 2절 노래가사를 우리 학급의 내용으로 적용하여 바꿔 부르기

~하는 우리 반, ~하는 우리 반,  
~하는 우리 반, 모두 다 꽃이야






**윤석중: 아동문학의 거장**

- 풍부한 작품  
1,300여 편의 동시를 남겼으며 그중 800여 편이 동요로 작곡되었습니다.
- 순수한 마음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진실되게 표현한 시인

**윤극영: 음악의 마술사**

**음악 선구자**  
192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동요 작곡가로 활약

**대표작**  
우리 나라 최초의 동요 「반달」을 작곡하셨습니다.



Made with Gamma

## 대표 공동 작품

나란히 나란히

어린이날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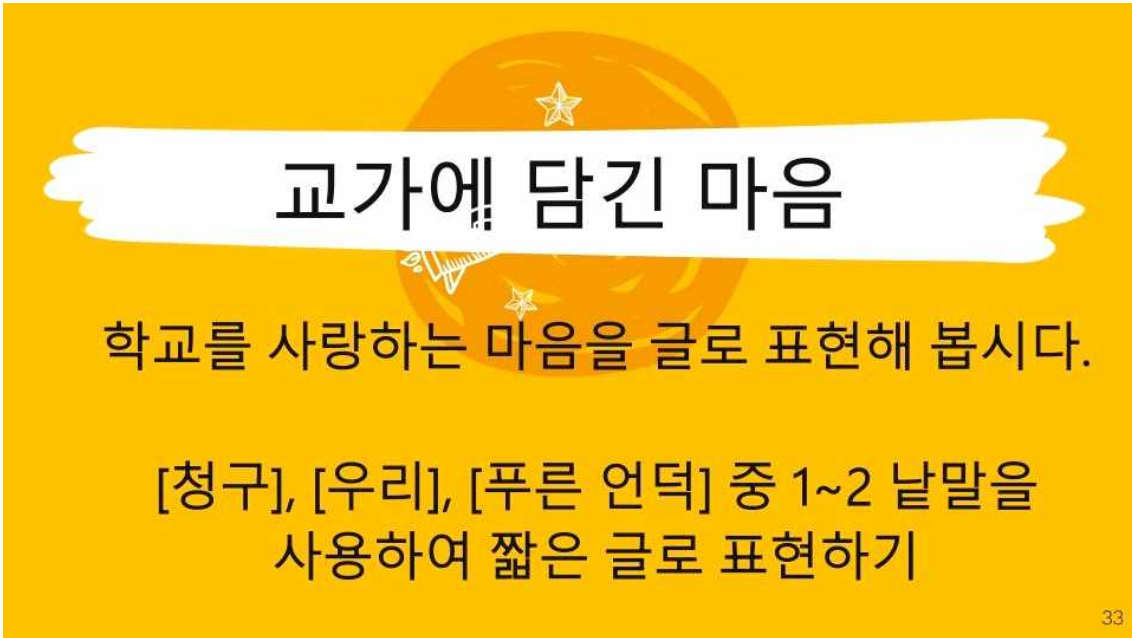
그 시기에 어린이를 위한 노래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 교가에 담긴 마음

교가를 만든신 할아버지는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마음을 배우기를 바라셨을까요?

학교를( )하는 마음, 친구들과 ( ) 지내는 마음,  
선생님을 ( )하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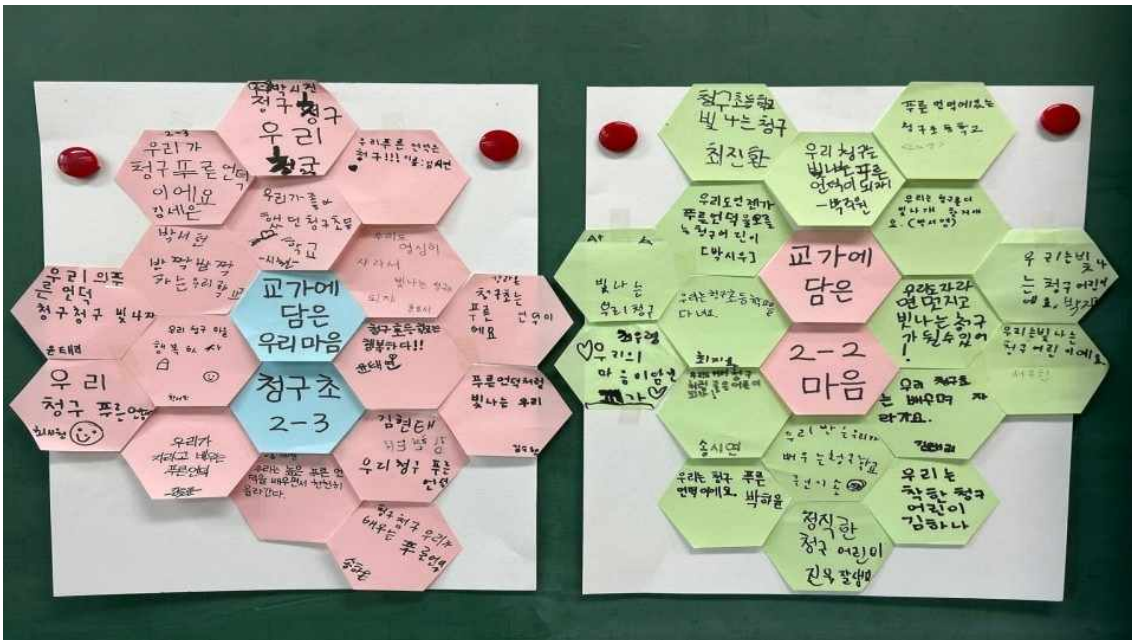


# 교가에 담긴 마음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글로 표현해 봅시다.

[청구], [우리], [푸른 언덕] 중 1~2 낱말을 사용하여 짧은 글로 표현하기

33



## 가사 만들기(3반)

우리 동네 한바퀴, 우리 마을, 우리 마을 한바퀴 돌아볼까?  
우리 동네는 뭐가 있을까? 네 거리엔 뭐가 있을까,  
즐거운 학교, 행복한 우리집,  
우리 학교 한바퀴 돌아볼까? 청구초를 한 바퀴 돌아볼까?  
나는 청구입니다. 푸른 언덕이죠  
청구초엔 뭐가 있을까?푸른 언덕처럼 빛나는 우리,  
향기로운 나무 냄새 맡아볼까, 우리 우정 우정 파티,  
우정끼리 한바퀴 돌아볼까?

35

## 노래 만들기(3반)

제목 : 청구초 한바퀴  
우리 동네엔(타타타타)  
뭐가 있을까(타타티티타)  
청구초 한바퀴 신나게 돌아봐요(타타타타)  
배려와 사랑, 빛나는 우정  
우리 함께 만들어요

<https://musiclab.chorusapp.com/Song-Maker/song/5500793260d51232>

36





하루한장 기타

## 나는 반딧불

종식이, 황가람

●근음 줄 X소리 만나는 줄

<b>C</b>	<b>E7</b>	<b>Am</b>	<b>F</b>

4/4	<b>C</b>	<b>E7</b>	<b>Am</b>	<b>F</b>	<b>G</b>	<b>C</b>	<b>C: 1,3,5,8</b> <b>E7: 3,7,G#</b> <b>Am: 1,3,6,8</b> <b>F: 1,4,6,8</b> <b>G: 2,5,7</b>
	나는 내가 빛나는 별 인 줄 알았어요 한 번 도 의심 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인 줄 알았어요 소원 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 동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i>Fine</i> <small>(마지막)</small>						
	나는 내가 빛나는 별 인 줄 알았어요 한 번 도 의심 한 적 없었죠						
	1358 37G# / 1368 1368 / 1468 257 / 1358 1358 /						



반주 합창

## 두 나무 이야기 프로젝트

동화	합창	뮤직비디오	버추얼 와이어	목공
<a href="https://drive.google.com/drive/search?q=%EB%91%90%20%EB%82%98%EB%AC%B4%20%EC%9D%B4%EC%95%BC%EA%B8%B0">https://drive.google.com/drive/search?q=%EB%91%90%20%EB%82%98%EB%AC%B4%20%EC%9D%B4%EC%95%BC%EA%B8%B0</a>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kYa0SWYsx4k">https://www.youtube.com/watch?v=kYa0SWYsx4k</a>	<a href="https://classroom.google.com/c/Mjc1NTgxMjUyNDk2/a/MzQ2MzEwMDYwMzUw/details">https://classroom.google.com/c/Mjc1NTgxMjUyNDk2/a/MzQ2MzEwMDYwMzUw/details</a>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e68jvRYjZAs">https://www.youtube.com/watch?v=e68jvRYjZAs</a>	<a href="https://drive.google.com/drive/search?q=%EB%AA%A9%EA%B3%B5">https://drive.google.com/drive/search?q=%EB%AA%A9%EA%B3%B5</a>





## 미래 삶의 동반자로서의 음악

### 음악 교육은

학생들에게 예술 활동에서 오는 순수한 아름다움과 기쁨, 자긍심을 선사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중에 느끼는 보람과 공동체성은 학교 담장을 넘어

학생들의 전 생애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음악으로 연결된 삶은 결코 외롭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진로 교육의 밝은 미래입니다.

45



46



## 주제발표 3

연극 무대에서 시작된 변화:  
청소년의 진로와 자기이해

---

발표자: 추미정 연출(사단법인 제로캠프)

---



한국진로교육학회

# 연극 무대에서 시작된 변화: 청소년의 진로와 자기이해

- '나'를 연기하며 '꿈'을 발견하다 -

발표자 : 사단법인 제로캠프 연출 추미정

## 배경



사진출처: 캠프코리아

2024년 한국 직업능력연구원의 진로 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22.8%, 중학교 38.7%, 고등학교 14.7%가 “희망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드림투데이(<http://www.dream.com>)

청소년 진로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기는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때문에 이 시기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기준과 목표를 세우지 못하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팬데믹 이후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뚜렷한 꿈이나 목표 없이 그저 먹고살 만큼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자기이해의 과정이 부족한 상태로 성장하는 경향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성인이 될 경우, 자신의 적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해 더 큰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진로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학생들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진로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진로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스스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예술 기반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건강한 진로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사단법인 제로캠프 소개

**“아무리 엉터리인 사람도 연극 안에 들어오면 약속을 지키고 책을 읽고 생각하며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

사단법인 제로캠프는 대한민국 위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법무부 허가 비영리단체로,

‘제로(0)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바탕으로 2012년 설립되었다.

이는 한 독지가가 소년 수형자를 위해 30억 원을 기부한 것을 계기로 출발하였다.

제로캠프는 법무부 산하 소년원 및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장기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극을 매개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참여자들의 정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본 사례는 문화예술교육 영역 중 연극 프로그램으로, 김천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를 비롯하여 학교 밖 청소년,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단순한 공연 제작을 넘어,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이해하며,

사회와 마주하는 경험의 과정을 핵심으로 한다.

**“연극은 한 편의 작품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표현하며 세상과 나 자신을 마주하는 과정이다.”**

## 1. 학교밖청소년 금융 뮤지컬 프로그램 신한 Shining S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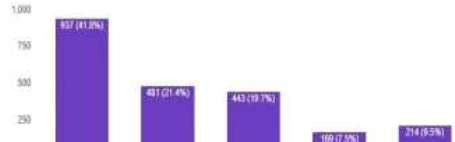
###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 학교밖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만든 뮤지컬 ‘신한 Shining Star’의 프로그램은 2019년을 시작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흥미 있어 뮤지컬에 금융 이야기를 더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금융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2022년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무대에 올렸던 <적금왕>, <Bad Voice>, <외계인>을 차례로 선보여 코로나로 인해 단체 관극을 할 수 없었던 학생들에게 색다른 문화체험과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본 공연은 학교에 찾아가는 공연으로 진행되며 신한은행의 후원을 받아 30회 무료 공연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찾아가는 공연 뿐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금융뮤지컬을 촬영 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금융교육자료로 무료 배포 하였으며 2025년까지 약 30만명이 관람하였다.
- 7년간 약 120명의 학교밖청소년들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80% 이상이 연극영화과 진학 및 배우의 진로를 희망하게 되는 성과를 보였다.

## 1. 학교밖청소년 금융 뮤지컬 프로그램 신한 Shining S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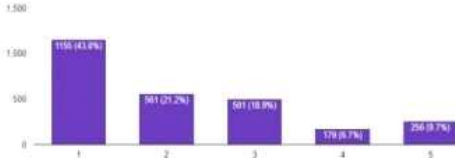
문4) 본 뮤지컬 공연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공연입니다. 공연 관람 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응답 2,24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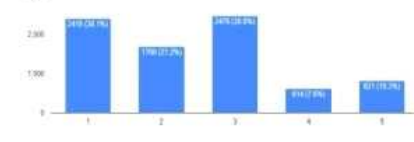
문4) 본 뮤지컬 공연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공연입니다. 공연 관람 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응답 1,632명



문4) 본 뮤지컬 공연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공연입니다. 공연 영상 시청 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응답 4,058명



본 공연을 관람한 학생들의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있었으며, **현장에서 대면 공연을 진행한 학생들과 비대면 영상으로 본 학생들의 설문 결과를 통해 비대면 영상 시청보다 직접 공연을 본 학생 관객들의 반응이 좋았으며 영상 시청 후 대면 공연을 원하는 학교도 있었다.** 또, 대면 공연을 진행한 학교들은 영상을 신청 문의가 있었으며 다른 영상들이 있다면 공유를 원하였다. 본 공연을 관람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으며 **공연을 하는 배우들이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라는 사실에 좀 더 와닿았다는 평이 많았고, 선생님들에게서 교육적인 효과가 있음을 다시금 입증하였다.**

실제 공연을 관람한 학생들은 금융교육 공연의 내용 이해를 넘어, 연출가나 배우를 꿈꾸며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직접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또래 청소년이 무대 위에서 꿈을 실현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대리적 성취를 경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 학교밖청소년 금융 뮤지컬 프로그램 신한 Shining Star 참여자 후기

...뮤지컬 배우가 꿈이지만 시간과 재정이 어려워 스스로 연습해보려 했다. 근데 너무 쉽지 않았다. 그랬기에 나에게 이 사업은 간절했다. 무료로 교육과 공연준비를 시켜줌으로 경험과 실력을 올려줌 동시에 페이도 주니 나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기회였다. 무엇보다 실제 무대에 서면서 자존감을 많이 채울 수 있어 굉장히 좋았다. 매번 느끼지만, 공연을 준비하며 받은 스트레스들이 공연을 올릴 때 다 사라지는 것 같다. 그만큼 **무대위에서 얻는 즐거움과 성취감이 매우 컸고 스스로에게 비판밖에 없던 삶에 스스로를 처음으로 칭찬하며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었다.** -2025 신한사이닝스타 참여자 선00-

...단순히 공연 경험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얻은 시간이었다... 정말 감사했던 것은 배울 수 있다는 기쁨이었다. 어디 가서 쉽게 배울 수 없는 이 수업이 너무 소중했고 즐거웠다. 중등 마지막 학년을 아무데서나 할 수 없는 공연 경험과 추억,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잘 버티고 배우고 공연을 올린 나 자신에게도 자찬하고 싶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그냥 끝내지 않고, 첫 도전인 이 기억을 발판 삼아 더 큰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앞으로의 내가 더 기대되는 바이다.** -2025 신한사이닝스타 참여자 박00-

이번 **뮤지컬 활동은 내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 준 소중한 경험이었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시간이었다,** 함께해 준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평생 잊지 못할 뜻깊은 시간으로 오래 기억될 것 같다. -2025 신한사이닝스타 참여자 김00-

2회라는 적다만 적고 충분하다면 충분한 공연 속에서 많은 떨림과 설렘을 느꼈고, 또 많은 좌절과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연을 겪으며 저에게 또 다른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무대가 너무 좋은가 봅니다. 다시 겪으려 하면 저는 더 약삭같이 둘러보고 싶습니다. 아쉬움과 뿌듯함이 남는 공연이었습니다. 건널 힘이 없는 제게 너무 버거웠을 수 있었겠지만 **나중에 뿌리 깊은 나무가 된 저에게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든 이 기억을 가지고 약속같이 살아남아 최정상에 서는 배우가 되려고 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2025 신한사이닝스타 참여자 하00-

## 2. 청각장애 아동·청소년 연극사업 옥탑방 달팽이

옥탑방달팽이는 청각장애인의 사회성과 자존감 향상을 위해 지난 2022년 사랑의달팽이가 창단한 연극단이다. 인공와우 수술을 했거나 보청기를 착용하고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입단체 활동할 수 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창작 연극 또는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다.

공연 1회 당 관객 200명 규모로 진행하였으며, 매해 만석으로 자리를 채우며 2026년 재공연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총 참여 단원 : 47명 \*중복인원 있음.  
공연 참여 성인 배우 : 총 20명



< 1기 >  
2022년, 단원 8명, 공연 2회



< 2기 >  
2023년, 단원 10명, 공연 2회



< 3기 >  
2024년, 단원 13명, 공연 2회



< 4기 >  
2025년, 단원 16명, 공연 5회

## 2. 청각장애 아동·청소년 연극사업 옥탑방 달팽이



연극 단원 중 한 명은 공연을 마친 뒤, 같은 청각장애 단원들과 함께 연극을 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청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80%의 학생들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며, 전교에서 청각장애 학생이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변 또래 친구들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자신감을 잃고 쉽게 소외되어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곤 합니다. 또한 비장애인 친구들의 '발음이 이상하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등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편견으로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공연을 함께 준비하면서 청각장애라는 공통점을 가진 아이들이 정서적 아픔을 서로 공감하고 유대감을 형성하여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경험할 수 있었고, 공연을 관람한 대중에게도 청각장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출처 : 사랑의 달팽이-

## 2. 청각장애 아동·청소년 연극사업 옥탑방 달팽이



## 2. 청각장애 아동·청소년 연극사업 옥탑방 달팽이 참여 단원 후기

"공연을 하고 나서 자신감이 생겨 꿈이 생겼어요. 원래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공연을 통해 사회복지사라는 꿈이 생겨 대학을 준비중입니다. 다음 공연에도 참여할 거예요."  
-단원 권00-

"공연을 하고 발음도 많이 좋아지고 배우의 꿈이 생겼어요."  
-단원 김00-

"이번 연극을 통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미로라는 역을 연기할 기회가 주어진 데 감사하고, 청각장애가 있어도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단원 박00-

"청각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싶어서 공연을 참여했는데 공연을 통해 이론 것 같아 마음이 좋아요."  
-단원 윤00-

"공연을 통해 바꾸고 싶었는데 성격도 많이 바뀌고 좋아하는 일과 직업으로 가져야 하는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단원 반00-

"청각장애를 지닌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과 연극을 준비하면서 함께 응원하고 소통할 수 있어 즐거웠다."  
"재 성격과 달리 미로는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캐릭터인데, 연기를 통해 새로운 면을 접하고 공감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단원 최00-

"처음으로 공연 무대에 선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막상 무대에 올라 연기를 하고 나니 성취감이 크고 굉장히 뿌듯했다"  
-단원 오00-

"역할 자체가 너무 내 이야기 같아서 공감이 많이 됐다. 듣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돌리지 않는 것에 자책할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다른 배우들과 함께 역할을 맡아가면서 연기를 하고 무대에 서니 무척 행복하다. 앞으로 청각장애인 배우가 돼 말을 잘 하지 못해도 감정을 표현하고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단원 홍00-

## 2. 청각장애 아동·청소년 연극사업 옥탑방 달팽이 공연 관람 후기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청각장애 아동의 보호자로서만의 입장이 아닌 청각장애 당사자의 시선에서 풀어낸 일상의 이야기를 너무 재미난 스토리를 입혀 다각도로 풀어낸점, 다양한 음악과 춤 연기가 너무나도 멋졌습니다~ 잘해내지 않아도 되고 나를 자유롭게 나타낼수있는 통로가 우리 아이에게도 생긴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청각장애 당사자 그리고 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뭘까?’,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하는 고민이 많았는데, 마치 내 이야기를 무대에서 들려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잠시 벗어나, 나 자신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 내 마음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공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무대도 벌써 기대돼요.”

“먼저 무한한 박수를 쳐주고 싶다. 그 긴 시간동안 공연한다는게 보통일이 아닌데, 단원들 모두 집중해서 참여하며 즐기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우리 단원들의 순수하고 진심이 담긴 공연이라 더 재밌었고, 함께 하는 배우들의 조화! 감동과 유머 포인트를 적절하게 이용하신 연출님의 그림! **미로가 진심을 가지고 하고싶은일을 하겠다고 도전하는 것처럼 달팽이 단원들도 지금처럼 하고싶은일을 도전하며 살아가길 응원한다!! 정말 멋진 달팽이 단원들이었다.**”

“삶과 죽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시공간이나 막힌 자는 존재한다는 뼈아픈 사실도 절실히 각공했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다. 내가 절실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돌아 보고 질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내 인생을 스스로 용기내어 살아가야한다는 메시지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미로의, 미로와 같은 또다른 불편한 장애를 가진 다른 수많은 미로에게!!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이번 공연을 위해 애써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와우 친구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눈에 띄게 성장하는 연기력을 보여주었고, 무대를 아름답게 채워주신 모든 연출진과 스태프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이 무대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대를 통한 소중한 경험과 ‘희복’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따뜻한 울림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3. 김천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 연극 프로그램



출처 : 2025\_교정통계연보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교정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교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소년수형자는 복역 이후 사회로 복귀하게 되는 청소년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은 자기표현과 정서 경험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탐색할 수 있는 교육적 가능성을 가지며,

연극을 활용한 교육은 역할 경험과 협력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 3. 김천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 연극 프로그램



### 3. 김천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 연극 프로그램

01

#### 잠재능력 개발

집단상담과 예술교육을 통해 소년수형자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합니다.

02

#### 건강한 문화의식 함양

유지집 교육을 통해 팀동심과 문화적 소양을 기릅니다.

03

#### 자아존중감 회복

공연을 통해 가족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신뢰를 회복합니다.

04

#### 교정교화 효과 극대화

내적 치유와 함께 사회복귀에 대한 자신감을 높입니다.



내적 치유를 위한 다양한 교육

2012년부터 시작된 김천 제로센터는 소년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내적 치유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유지집으로 완성되는 변화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집단상담, 예술교육, 체육활동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유지집 공연으로 발표합니다.

### 3. 김천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 연극 프로그램



소년수형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한 김천소년교도소 제로캠프 프로그램은 2013년 공연을 시작으로 작년 2025년에 13번째 공연을 맞았다. 제로캠프 프로그램은 소년수형자들이 공연 참여를 통해 사회복귀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형성하고, 자신의 현실적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공연을 지속적으로 제작·운영해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현실을 직면하고, 진정한 반성을 기반으로 향후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025년에 올린 연극 <몽(夢)>의 내용은 소년수형자 재역이 복역 후, 사회로 복귀하면서 겪는 내적 갈등과 성찰의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출소 후 재역은 사회적 낙인과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속에서 방황하며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 재역은 새로운 삶을 희망하지만 과거의 죄와 속죄의 무게로 인해 쉽게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교도소 시절 연극 수업때 배운 “호흡이 곧 존재이며 의미다”라는 가르침을 떠올리게 된다. 이를 통해 자기 성찰과 변화의 의지를 다지며 흔들리는 내면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게 되고 재역은 내면의 통골 속 자신을 스스로 마주하며 진정한 자유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이 이야기는 실제 김천소년교도소에서 4년간 복역 후 출소한 재역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공연이다. 실제 재역의 사회복귀 후 피해자에게 연락 온 이야기를 듣고 “출소 후 아이들이 마주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질문에서 ‘아이들이 잘 사는 것에 불편한 시선을 따라가보았다. 그러다 과연 ‘잘 산다’ 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은 누구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며 사람은 저마다 크고 작은 어두운 내면의 통골을 품고 그것을 들여다 보기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통골에 들어가 스스로를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극안애 녹여 참여자들이 연기를 하며 성찰하고 깨달은 시간을 가지게 하였다. 특히 공연 후 실제 재역이 주대 위로 등장하여 공연을 관람했던 수형자 가족들과 교정공무원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고 실제 참여 수형자들에게 마음에 외닿는 계기가 되었다. 어떤 참여자는 출소 후에도 자신도 재역이 처럼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다 김천에 가서 수형자들에게 이야기 해주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자신도 앞으로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 김천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 연극 프로그램 참여자 후기

...가족들 앞에서 처음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배웠고 특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버지와 관계회복을 하게 되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참여자1)-

저는 이번 공연을 통해 ‘앞으로 나가지는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실제 재역을 보며 친과가 있어도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대학을 다니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무대에 서고 연기를 할 생각조차 한 적 없는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또, 이번 공연을 준비하며 함께 고생하고 땀흘린 22명의 형, 친구, 동생들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생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공연을 마치고 할머니와 동생을 보는데 저의 과거 잘못을 되뇌이게 되었고 후회도 많이 되어 반성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참여자2)-

저는 이곳, 김천 소년교도소에 오기 전에는 제가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이번 공연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공연 준비를 할 때는 ‘공연이랑은 하나도 관련이 없는 내가 왜 여기 있는거지’ 생각하며 대중 하려고 하였는데, 공연 때 저와 제 동료들이 연극을 보게 되실 제 사랑하는 부모님과 다른 방정격들이 생각이 나서, ‘이왕 하는 거, 최선을 다해보자’ 하며 마음을 다지었고 제 동료들과 연을 선생님, 다른 배우분들, 율향 감독님, 조명 감독님 그 외의 다른 분들과 최선을 다하여 공연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이 지나자, 어느새가부터 저는 저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닌, 박수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참여자3)-

이번 공연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낀거랑 많은 것 배웠습니다. 깨달은 점은 우리도 출소 후 뭔가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일 할 수 있는 점 느꼈습니다. 이번 연극 진짜 주인공 보고 들었던 생각이 우리도 못 하는게 없다라는거 생각하고 우리도 재역 그 사람처럼 모범인생 살 수 있고 느꼈습니다. 피해자와 어울리란 건 뭘지 알게 됐고 피해자한테 그만큼 미안한 마음 더 생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출소 후도 변하지 않고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갈것 같습니다. 이번공연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것 느끼고 많은 것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연하는거 가족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이제부터 더 열심히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들고 더 잘 할 수 있다는거 믿고있습니다.-(참여자4)-

잠옷을 저질러서 이곳에 들어왔지만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잘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서 이 공연을 하게 해준 후원자와 특히 열정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미정쌤과 혜수쌤, 그리고 박선생을 맡은 (태우쌤) 쌤에게 감사드리고 이렇게 재밌고 좋은 대본을 써주신 쌤에게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과 값비싼 경험을 남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참여자5)-

## 김천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 연극 프로그램 참여자 후기

저는 이번 공연을 통해 **저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운동만 했어가지고 내가 나가면 할 수 있나 생각을 했었는데 운동 이외에도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구나,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밖에 친구들이 꿈을 펼치 나갈 때 나는 너무 뒤처지는게 아닌가 조금 많이 있었는데 나는 그냥 나만의 속도대로 가면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운동 세계에 살았다 보니까 커리어, 경력에 얽매어 살았어서 **나아가서의 진로가 고민이 됐었는데 이번 공연을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공연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관객들의 박수를 받는 것도 좋았지만 선생님들, 스태프, 직원분들, 애들이랑 함께 준비해나가는 과정이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표현을 전부 못 할 정도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나아 갈 수 없을 거 같은 저에게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만큼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참여자6)-

저는 이번 공연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회에서 목적 없이 살았던 나날들과 의미없던 하루 하루를 연극의 호흡이라는 의미로 채워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같은 공장 아이들과 함께 함을 맞추고 그 과정에 분명 어려움도 따랐지만 그 구성원들과 협업하며 **합동심을 길렀고 공연을 성공 시키겠다는 책임감은 사회에 나가서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잡을 있어 커다란 자양분이 될 것 외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두운 tunnel 속 작은 불씨가 주변을 밝히듯 저 또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참여자7)-

문화예술반에서 처음 뮤지컬 공연을 한다고 했을때는 내가 잘 할 수 있을? 이런 생각도 들고 걱정도 많았는데 선생님을 비롯해서 재로캠프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범죄자를 보는 시선이 아닌 한사람, 한사람을 배우로 바라봐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제가 그런 무대에서 빛날 수 있었고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2년동안 배양량 수업하면서 저 스스로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고 특히 **인기를 하면서 저의 또다른 모습을 보게되고 그 과정에서 얻는 에너지도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작곡가라는 꿈도 생겼습니다. 뮤지컬 넘버를 작곡해보고 싶은 목표도 있습니다.-(참여자8)-

뮤지컬이 주는 감동과 웃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꿈이 되고 다시 새 출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우리가 손과 발이 하나하나 보여 큰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습니다. **인생 첫 공연이었는데 지금껏 생각해보지 못했던 뮤지컬 배우라는 꿈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으로 인해 제 자신 또한 많은 걸 느끼고 성장해 나가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들어와 많이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많이 있었는데 이 뮤지컬을 통해 **자신감과 자존감이 많이 회복 되었습니다.** 문화예술반이 하나가 되어 호흡을 맞추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걸 보고 팀워크가 찰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하는 날 재력이라는 분이 조언 해주셨을 때 **새출발이라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참여자9)-

## 김천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 연극 프로그램

이번 공연은 정말 뜻 깊은 공연인 것 같습니다. 박선생이 그토록 찾던 의미, 재력이 갈구하던 해방, 황승이의 분노, 태수의 사형받지 못한 실움이 모두가 의미라는 것에 집합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 원하는 것을 쟁취합니다. **그렇듯 우리도 뭐하나 잡아 열심히 하면 원하는 것을 얻고,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표현하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잘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작은 발걸음이 쌓여 큰 발자국이 되어 하나의 의미, 뜻을 만드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공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참여자10)-

부족한 우리지만 결국 성공하였고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번 공연이 느낀 점을 많이 가져온 듯합니다. 뭐하나 제대로 해본적 없는 제가 이렇게 가득 앞에서 단단해진 모습으로 보여지고 나도 이제 잘할 수 있다는 걸 표현하며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아 심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연이 제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 사회의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참여자11)-

공연을 하며 익숙치 않은 박수와 환호를 받으니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 같고, 또 그 희망으로 인해 사회에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믿거름이 된 것 같아 정말 의미 있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참여자12)-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느꼈던점이 많습니. 그 중에서 가장 큰 점은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발견한 것과 **이전에 제 행동에 대한 반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김천소년교도소 문화예술반에 오기 전에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만 느껴졌는데 이곳에 와서 올랐던 **제 내면에 잠정도 찾고, 새로운 경험을 해서 뜻 깊고 의미있는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또한 흥이리는 공연 주제에서 재력이라는 소년인 본인의 행기를 마치고 출소를 하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보고 **과거의 제 행동들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마음가짐과 진실된 반성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할 수 있는 기회여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참여자13)-

### 김천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 연극 프로그램

공연을 준비하며 저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앞으로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서 이곳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곳에서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공연 후에 나오는 재력이라는 인물을 보고 피해자의 마음과 제 잘못된 행동을 떠올려 보고 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진실된 반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번 공연을 하고 정말 달라진 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이번 의미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 잊지 않고 제 미래에 도움이 되는 기억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참여자14)-

이번 연극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의 옛날을 돌아보며 저 자신에 대한 성찰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잘 사는 것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저희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인지 피해자를 위해 괴롭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제 답은 두 가지 모두였습니다. 이미 저지른 죄 되돌릴 수 없으니 피해자에게 가지는 죄책감 잊지 말고 저의 앞날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 죄책감을 발판삼아 한 단계 올라가는 것 그것이 잘사는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깨달음을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사회복지과 주임님들께 감사드립니다.-(참여자15)-

저희가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고생해주신 수많은 관계자 및 직원분들이 아니었다면 평생 이런 성취감은 느껴보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제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이번 공연으로 인해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참여자16)-

내가 노력한 판다면 최선을 다한다면 나가서도 잘할 수 있을거란 용기가 생기면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연극처럼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살아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할 수 있을거란 기대와 용기가 생겼습니다.-(참여자17)-

### 김천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 연극 프로그램

김천소년교도소 제로컴프 공연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연극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사고, 감정, 인지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출소 후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전 존재하던 범죄유발요인인 분노, 공격성, 적대감, 반사회적 사고 및 충동성은 점차 감소했지만, 정서 조절 능력, 긍정적 사고, 책임감, 자기 자비 및 타인에 대한 자비심은 향상되었다. 아울러 배려, 협력, 공감과 같은 친사회적행동이 학습되었다는 응답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삶에 대한 관점의 전환으로 이어졌으며, 참여자들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결심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 1. 변화된 나

- \*선하게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욕도 자주 하고 그랬다면 욕도 좀 줄이고 그런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참가자 1)
- \*원래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일단 저지르고 봤었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고이게 맞는 일인가 하고 행동하면서 좀 더 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가자 4)
- \*확실히 그냥 사람이 바뀐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래 같았으면 그냥 아무 생각도 안하고 그냥 빨리 나가고 싶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그냥 누워서 장이나 자고 싶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뭐 그런 생각 들었는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생활하면서도 막 중의지가생기고 활력이 돌아요\* (참가자 6)

#### 2. 더 나은 삶에 대한 지향

- \*예전처럼 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참가자 1)
- \*제가 여러 갈래 중에 잘못된 길로만 갔었는데 이젠 어떤 길이 좀 바르고 올바른길인지 몰라도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인지 아니까 그 길로만 안 가려고 그 길로는 언가게 다른 길로 선택해서 갈 것 같습니다\* (참가자 2)
-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참가자 5)

사회적 유대감 범주에서는 예술 활동이 수평적 관계망 재구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극 집단은 대사 맞추기와 동선 협업 과정에서 역할 기반소비를 형성했다. 제로컴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수 경험이 출소 후 5년간 재입소율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을때 약 2.5~4%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예술 프로그램이 소년수형자의 심리적 재발 뿐 아니라 재범 예방에도 효과가 있음을 시사함. 제로컴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교정 프로그램의 핵심 목적인 시설내 적응과 재범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여겨진다.

남재원, "소년수형자 대상 연극 프로그램과 사물놀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질적분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2025. 경기도 신나영, 제로컴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경기대학교 신학협력단 2025. 법무부

## 결론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연극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의 진로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연극은 하나의 작은 사회이자 삶의 축소판으로, 참여자들은 연극이라는 안전한 공간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만나 배우와 역할로서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책임감과 협동심을 형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경험 속에서 팀원 간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한다. 특히 무대 위에서 하나의 결과를 완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참여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자기효능감과 자존감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연극교육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연극은 단순히 배우라는 직업적 진로를 넘어서,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과정으로 확장된다. 참여자들은 배역을 수행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돌아보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잘하는 것과 부족한 것, 나아가 앞으로 하고 싶은 방향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내면적 성장과 치유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연극을 통한 경험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주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청소년기는 이후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이며,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자기이해를 심화하고,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청소년 개인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라보는 사회와 어른들의 인식 변화로까지 이어져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마무리

# 감사합니다.



## 종합토론

---











## 포스터발표

가정외보호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우울의 조절된 매개효과

| 김영진

---

경험은 언제 행동으로 전환되는가?

: 진로 적응성과 경험활동 전이의 조절된 매개역할

| 김경희, 어윤경

---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이순희, 이진영, 손은령

---

일의 심리학 이론에 근거한 진로수업 사례연구

| 고흥월, 문주혜, 전해인, 정유진, 조경철, 최지유

---

재수생 대상 국내 연구 동향 분석

: 내용분석 및 LDA 토픽모델링 분석의 활용

| 지수인, 한신혜, 강한별

---

진지한 여가 경험을 통한 청년의 주체적

진로구성과정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

| 정래온, 이선규, 박상익, 조예인, 이해은

---

텍스트 마이닝 기반 자유전공 및 전공자율선택제

연구 동향 분석: 2008년~2025년

| 이진영, 김현주, 손은령

---

Super의 진로발달이론 기반

중학교 1학년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김아람, 김채원, 전소영, 인효연

---



## 가정의보호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우울의 조절된 매개효과

김영진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가정외보호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우울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외보호청소년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생활하며 일반 청소년과는 구별되는 환경적 제약과 심리적 부담에 노출되며, 이들의 진로발달은 보호환경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지지와 심리정서적 특성과의 연관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KCYC)」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439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14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우울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강하게 작용하고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그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절된 매개지수 역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외보호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증진을 위해 시설 내 사회적 지지 강화와 자아존중감 증진 개입이 핵심적임을 시사한다. 특히 우울 수준이 높은 청소년에게는 심리정서적 지원과 진로교육을 통합한 이중적 개입 접근이 요구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보호 유형별 차이를 비교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가정외보호청소년, 사회적 지지,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 우울, 조절된 매개효과

---

† 교신저자 : 성명, 소속, 이메일 주소

## 경험은 언제 행동으로 전환되는가? : 진로적응성과 경험활동 전이의 조절된 매개역할

김경희

어윤경<sup>†</sup>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연구 목적:** 대학생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실제 진로를 위한 탐색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학생의 경험이 실제 탐색의 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계획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와 경험활동 전이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방법:** 2025년 12월 대학 1~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응답 650부에 대해 PROCESS Macro Model 1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동시에 검증하는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계획은 진로적응성( $B = .395, p < .001$ )과 진로탐색행동( $B = .342, p < .001$ ) 모두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진로적응성 또한 진로탐색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979, p < .001$ ). 경험활동 전이는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 = .768, p < .01$ ), 진로적응성과 경험활동 전이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나( $B = -.157, p < .01$ ), 경험활동 전이는 진로적응성이 진로탐색행동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약화시키는 조절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탐색행동이 계획과 진로적응성을 통한 단일 경로가 아닌, 경험활동 전이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사점:** 이 연구를 통해, 진로교육에서 경험 제공 자체보다 경험이 실제 행동으로 전환되는 조건을 설명되며, 경험활동 전이는 진로탐색행동을 직접 촉진하면서 동시에 진로적응성의 효과를 변화시키는 핵심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의 진로교육이 경험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경험활동 전이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행동 촉진 전략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경험활동 전이, 진로적응성, 진로탐색행동, 진로교육

<sup>†</sup> 교신저자 : 어윤경, 국립공주대학교, tongkna@naver.com

##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순희 손은령<sup>1)</sup> 이진영

충남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26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기초통계와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Hayes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리적 독립은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 차이 분석에서는 남학생은 직접적인 문제해결과 장기적인 시각의 미래계획이 하위요인 중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여학생은 진로정보와 미래계획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밝혀졌다. 이를 토대로 대학생의 진로교육과 상담현장에 비교적 단기간에 변화와 촉진을 일으키는 다양한 진로핵심역량 들에 대해 다루고, 진로발달 촉진을 위한 심리적 변인을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진로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 심리적 독립, 진로적응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매개효과

---

1) 교신저자: 손은령,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soner@cnu.ac.kr

## 일의 심리학 이론에 근거한 진로수업 사례연구

고홍월\* 문주혜 전해인 정유진 조경철 최지유

충남대학교

이 연구는 일의 심리학 이론에 근거하여 고등학생의 방과 후 진로수업 내용을 설계하고 수업을 운영 후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 진로교육, 진로상담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을 주로 강조하고 개인의 진로선택이나 의사결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등장한 일의 심리학 이론은 전통적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복합적인 모형을 제안하였다. 일의 심의 심리학 이론에서는 선행변인, 조절변인, 결과변인의 구조와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고등학생의 진로수업을 총 6차시로 설계하고, 일의 심리학 이론의 선행변인인 사회적 소외와 경제적 제약, 조절변인인 비판적 의식, 적극적 성격, 사회적지지, 그리고 결과변인인 생존욕구, 사회적 기여욕구, 자기결정욕구를 중심으로 각 차시의 수업 내용을 설계하고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하였다. 수업 운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비판적 의식의 하위 영역인 비판적 성찰, 비판적 효능감에서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참여 학생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 비판적 성찰, 비판적 효능감, 비판적 행동, 주도적 성격, 사회적지지 영역에서 수업 참여 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진로 방과 후 수업 운영에 국한되어 향후 집단 비교를 통해 수업 운영 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진로수업, 사례연구, 취약계층 청소년, 일의 심리학 이론

---

\* 교신저자 : 고홍월, 충남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gaohy@cnu.ac.kr

## 재수생 대상 국내 연구 동향 분석: 내용분석 및 LDA 토픽모델링 분석의 활용

지 수 인    한 신 혜    강 한 별†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상담

본 연구는 국내 재수생 관련 연구의 경향성과 주요 연구 주제의 분포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발표된 재수생 관련 연구 36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구 시기, 학술지 수준, 연구 영역,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대상을 기준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 LDA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문헌 내 잠재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재수생 관련 연구는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학술지 논문이 학위논문보다 더 많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수행되었고, 주로 '심리 사회적 요인과 정신건강'을 주제로 다루었다. 연구 방법 측면에서는 양적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수의 연구가 연구 대상의 재수 횟수나 연령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토픽모델링 결과, '프로그램 및 교육 개입', '심리 사회적 요인과 정신건강', '진로 의사결정 과정', '학업 및 생활 실패', '건강 및 생리적 특성'의 5개 주요 토픽이 도출되었다. 이 중 '프로그램 및 교육 개입'과 '심리 사회적 요인과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연구의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수생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과 주요 주제들의 분포 및 상대적 비중을 파악하고, 편중된 논의와 미진한 영역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재수생, 연구동향, 내용분석, 토픽모델링

---

† 교신저자 : 강한별,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상담, khb8720@naver.com

## 진지한 여가 경험을 통한 청년의 주체적 진로구성과정 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

정래은 박상익 이선규 조예인 이해은<sup>†</sup>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서비스정책학과

본 연구는 AI기술이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청년들이 진지한 여가 경험을 통해 자신의 고유성을 발견하고 진로내러티브로 통합해 나가는 역동적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 메타요약(qualitative meta-summary)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의 진로구성과정과 관련된 진지한 여가 경험을 다룬 국내 질적연구 총 14편(학술지논문 13편, 학위논문 1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진로구성이론의 관점에서 확장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총 169개의 의미 단위를 도출하고, 이를 40개의 기술적 주제, 17개의 종합적 주제, 9개의 핵심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도출된 핵심주제는 '스스로 하고 싶어 여가활동을 시작하다', '활동 자체에 재미를 느끼고 활력이 생기자', '자기주도적으로 몰두하게 되다', '활동을 지속하며 성취감을 느끼다', '자기 발견을 통해 주체적으로 성장하다',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며 존재의 의미를 확장하다', '활동 분야 진로에 대한 흥미를 느끼다', '재능을 인정받고 전문가가 되고자 노력하다', '좋아하는 일로 꿈을 이루다'였다. 첫째, 내적동기의 발현과 몰입 경험 영역에서는 청년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의무감이 아닌, 오로지 자신 스스로 여가 활동을 시작하였다(35.7%). 순수한 즐거움은 무료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28.6%). 이 과정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탐구하고 파고드는 자기주도적 몰입을 경험하며(35.7%), 주체적 수행자로서 첫발을 내디뎠다(14.2%). 둘째, 자기 발견과 주체적 성장 영역에서는 반복되는 여가활동 속에서 크고 작은 난관을 극복하며(21.4%), 얻은 성취감이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다(42.9%). 특히 자신의 활동이 타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통해(21.4%), 청년들은 사회적 연결망 안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로서 확장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35.7%). 셋째, 전문가로의 도약과 꿈의 실현 영역에서는 여가를 통해 전문적으로 쌓은 실력과 역량이 일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으며(35.7%), 주변의 재능에 대한 인정이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7.1%), 더욱 전문가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되었다(14.3%).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문적 커리어와 통합하여 좋아하는 일로 꿈을 실현하는 주체적인 삶의 서사를 완성하게 되었다(14.3%).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의 진지한 여가 경험이 진로교육 및 상담 장면에서 주는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년, 진지한 여가, 진로구성이론, 주체성, 질적메타요약

<sup>†</sup> 교신저자 : 이해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서비스정책학과 조교수, helee11@hanmail.net

## 텍스트 마이닝 기반 자유전공 및 전공자율선택제 연구 동향 분석: 2008년~2025년

이진영 손은령<sup>2)</sup> 김현주

충남대학교

본 연구를 위해 2008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 266편 중, 연구목적에 적합한 논문 총 110편에 대해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전공자율선택제 및 사례에 관한 비교 연구, 중·고등학교 관련 연구 등을 제외한 연도별 논문 수는 2016년 1편 발행을 시작으로 2024년 24편, 2025년 70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정 문서 내에 자주 등장한 TF는 교육운영, 전공선택, 학생지원, 교육과정, 진로취업 전공탐색 순으로 나타났고, 드물게 등장하지만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TF-IDF는 복학, 소프트웨어, 이력서, 학기제, 성취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핵심 키워드 분석 결과, 학생은 경험, 지원, 성취·성과, 자아존중감, 교육구조는 교육과정 및 운영, 학사제도, 혁신, 진로는 전공선택, 전공탐색, 진로취업, 입학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토픽모델링에서는 Topic 2가 0.34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토픽1은 학생 경험 및 학습 성과, 토픽2는 교육과정 및 운영 체계, 토픽3은 전공 선택 및 진로개발로 명명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유전공학부 향후 제도 개선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자유전공, 자율전공, 무전공, 전공자율선택제, 텍스트 마이닝, 연구 동향

---

2) 교신저자: 손은령,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soner@cnu.ac.kr

## Super의 진로발달이론 기반 중학교 1학년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sup>3)</sup>

김아람<sup>1</sup>, 김채원<sup>2</sup>, 전소영<sup>3</sup>, 인효연<sup>4</sup>),

<sup>1</sup>국립공주대학교 박사수료, <sup>2</sup>국립공주대학교 박사과정, <sup>3</sup>국립공주대학교 석사수료,

<sup>4</sup>국립공주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과 희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uper의 진로발달이론에 기반하여 중학교 1학년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 4단계(마음 열기, 나 알아가기, 삶과 진로 탐색하기, 실천 계획 및 통합), 총 12회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G시 소재 중학교 1학년 학생 중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10명을 모집하여 참여집단을 구성하고, 회당 50분, 주 1회(1일 3회기 연속), 4주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비교집단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G시 동일 학년 학생 10명으로 구성하였다. 두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개발역량 척도와 희망 척도를 실시한 자료를 독립표본 및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집단과 비교집단 간 진로개발역량과 희망의 사전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전 점수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사전-사후 점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교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참여집단에서는 진로개발역량 전체 및 하위요인(자기관리, 진로 정보 탐색 및 활용, 진로 설계 및 관리)과 희망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생애 전반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진로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돕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중학교 1학년, 진로탐색, Super, 집단상담, 진로개발역량, 희망

3) 본 연구는 「2025년 공주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4)교신저자 : 인효연, 국립공주대학교, [hyoyeon@kongju.ac.kr](mailto:hyoyeon@kongju.ac.kr)